

대전 문화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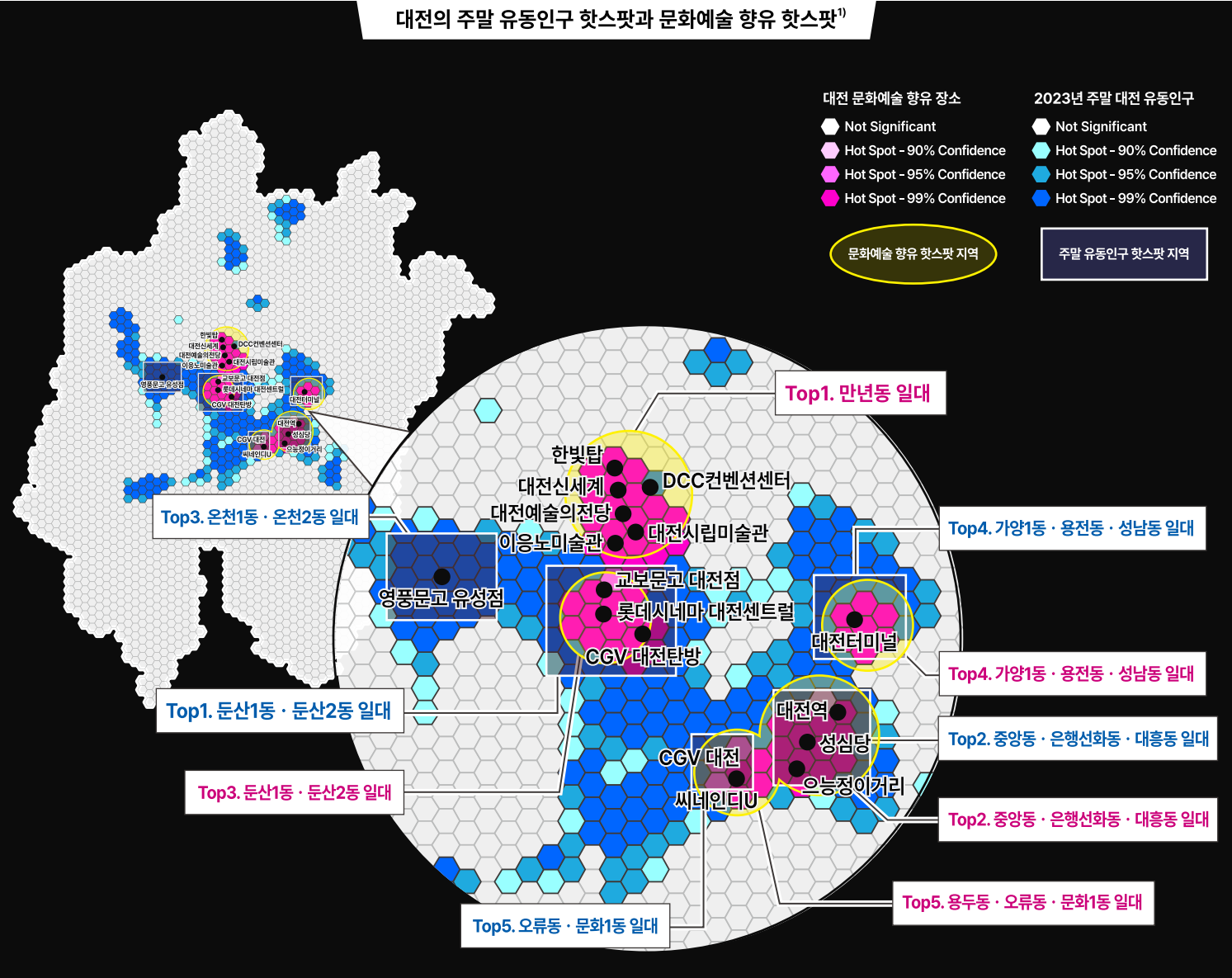
대전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디에 갈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정보센터는 '2024 대전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전에서 문화와 예술을 주로 즐기는 장소'에 대한 응답을 수집했다. 특히  
주말에 문화예술을 즐길 것이라 생각해, '2023년 SKT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했다. 대전 지역을  
500m×500m 크기의 육각형 격자로 나누고,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핫스팟(Hot spot)을 분석했다.

1) 조사대상은 대전에서 문화예술을 관람 및 참여한 20대 이상 성인 653명이며, 이 중 '대전에서 문화와 예술을 주로 즐기는 장소' 문항에 유효한 응답을 한 572명의 840건(최대 2곳까지 복수응답)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로 작성했다. 본 조사의 기간은 2024년 10월 4일부터 2024년 10월 27일까지였으며, 온라인 조사를 통해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2023년 10월부터 24년 10월)간의 문화예술 향유 실태를 파악했다.  
2) SKT 유동인구 데이터는 2023년의 데이터로 1시간 단위로 집계되며, 특정 기지국 범위에 15분 이상 체류하는 활동인구가 집계된다. 차량, 지하철 등 빠르게 통과하는 인원, 수면지역 집중업무자는 제외되며 농동 신호발생과 느린 이동 인구만 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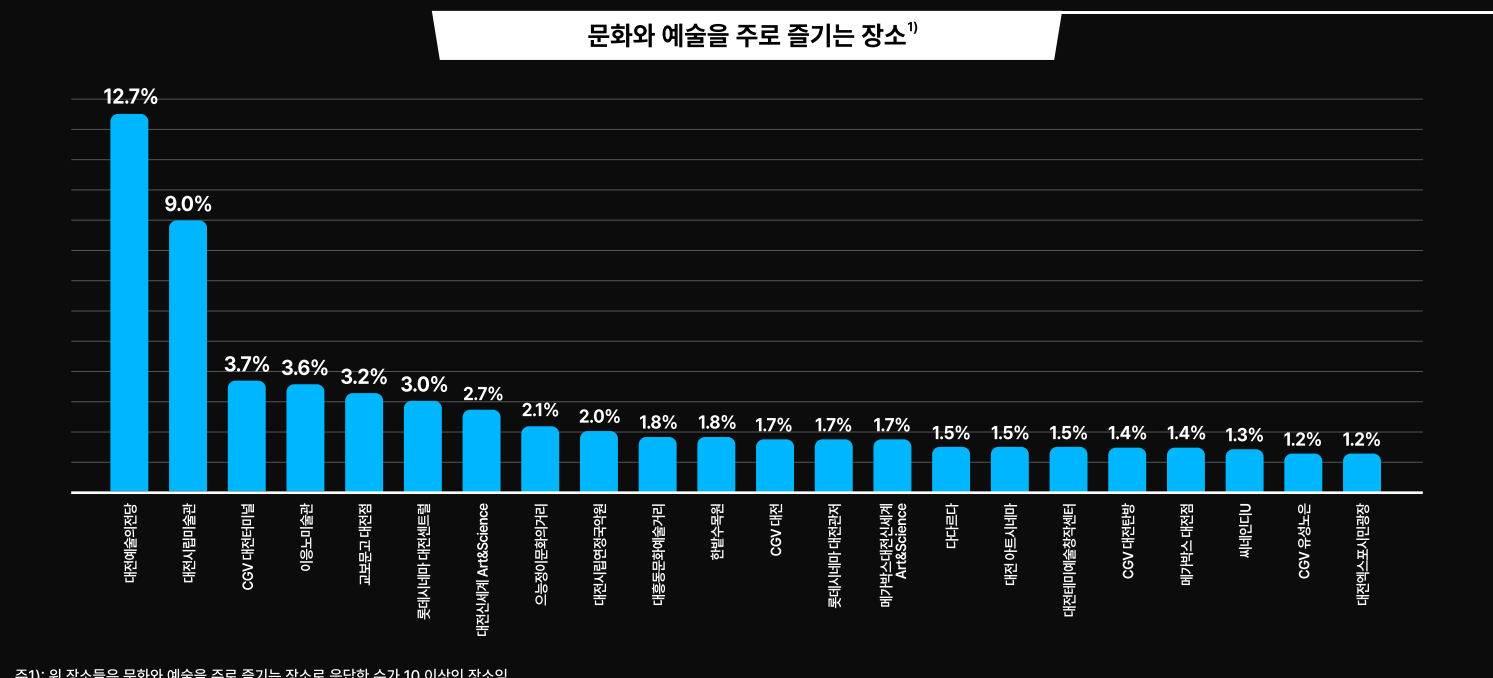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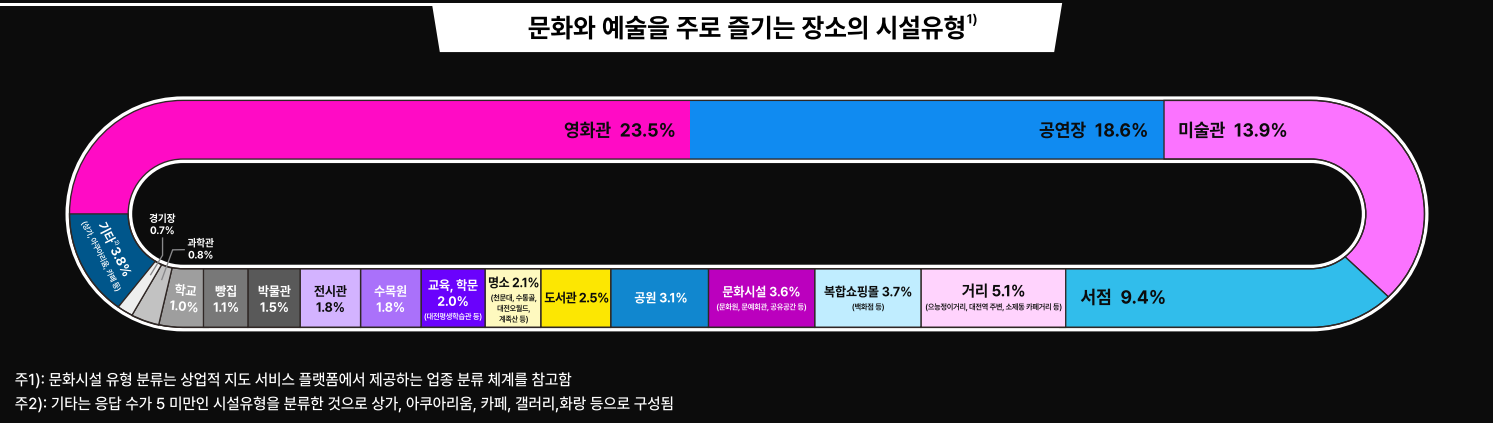
문화예술 핫플은 만년동, 유동인구 핫플은 둔산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문화예술 향유 장소로 기입한 내용을 분석했다. 대전시민들은 문화예술을 경험하기 위해 만년동 일대를 가장 많이 방문했고, 중앙동·은행선화동·대흥동 일대, 둔산1동·둔산2동 일대를 주로 방문했다. 이 지역들은 대전예술의전당, 오송정미술관의거리, 교보문고 대전점 등이 위치하는 지역이다. SKT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결과, 대전의 주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둔산1동·둔산2동 일대이며, 중앙동·은행선화동·대흥동 일대, 온천1동·온천2동 일대 등의 순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된다.

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문화예술 핫스팟 지역은 모두 주말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지만, 각 데이터의 방문 순위로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문화예술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는 만년동 일대인 반면, 주말 유동인구가 가장 집중되는 지역은 둔산1동·둔산2동 일대였다. 주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쇼핑, 식사, 여가, 만남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문화예술시설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도 함께 위치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만년동 일대의 경우 상업시설보다는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즉흥적인 방문보다는 계획된 방문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대전에서 문화와 예술을 주로 즐기는 장소' 문항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장소들을 시설유형별로 분류했다. 응답자들은 영화관을 가장 많이 꼽았고, 공연장, 미술관, 서점 등의 순으로 많이 방문했다. 구체적인 장소로 보면, '대전예술의전당'을 가장 많이 방문하고, '대전시립미술관', 'CGV 대전터미널', '이응노미술관', '교보문고 대전점' 순이다.



20~30대는 영화관, 40대는 미술관, 50대 이상은 공연장에서 문화예술을 가장 많이 즐긴다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이용해 주로 방문하는 문화예술 향유 장소를 연령대별로 분석했다. 20대와 30대는 '영화관'을 많이 방문하며, 40대는 '미술관', 50대 이상은 '공연장'을 많이 방문한다. 40대의 경우 1위부터 3위까지의 문화예술 향유 시설유형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연령대로 보인다. 전연령대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 '서구 만년동'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데 20대, 50대, 60대 이상은 '대전예술의전당'을 주로 방문하며, 30대와 40대는 '대전시립미술관'을 주로 방문한다.

